

# 미국 종교와 정체성의 추구

김 종 서

(서울대/ 종교학)

## 1. 미국인과 종교적 정체성

미국의 지배적인 특권 계급을 지칭할 때 흔히 WASP(a White Anglo-Saxon Protestant)이라는 말을 쓴다. 특정 미국인의 정체성(identity)을 구성하는 상징 구조에 인종적·민족적 측면과 더불어 종교적인 측면은 중요한 요소를 구성해 온 셈이다. 이것은 또 미국인의 개인적 정체성이 종교적 정체성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뜻함으로도 해석된다.

실로 미국은 청교도들의 이민에서 비롯된 나라라고들 한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그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바닷가에 내렸던 최초의 청교도들에서 미국의 모든 운명을 내다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런 면을 잘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오늘날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통계적으로 오늘날 미국인들은 전 국민의 60% 이상이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로 자신을 자기확인(self-identification)하고 있으며, 40% 정도가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이상 종교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또 “신 같은 절대적 존재가 있다고 믿는가?” 하는 질문에는 심지어 거의 95%가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sup>1)</sup> 최소 화폐

---

1) Caplow, T., et. al., *All Faithful People: Change and Continuity in Middletown's Relig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pp. 20-30. 심지어 갤럽에서 실시한 다른 통계에서는 전혀 어떤 공식적인 종교와도 관계가 없다고 한 이른바 무종교인은 오직 4%에 불과하다. Roston, L., “III. Affirmations of Religious Identity: Catholics, Jews,

단위인 1 센트(cent)짜리 동전에조차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서로를) 믿는다(In God We Trust)’ 라고 새겨놓은 것은 다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데는 그들의 종교적인 면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다워지는데 종교가 매우 중요한 부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셈이다. 그래서 존 스마일리(John E. Smylie) 같은 학자는 미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이 국가에 교회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특히 개개의 미국인들이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주요 공동체가 됨을 지적했었던 것 같다.<sup>2)</sup> 또 최근에는 변화된 종교적 환경 때문에 종교적 정체성이 생활 속에서 문제가 된 경우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다.<sup>3)</sup> 예컨대, 하나의 종교 공동체에서 다른 종교 공동체로 옮겨간 사람들은 “나는 아직도 바탕은 침례교인인 장로교인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혼란스런 느낌을 종종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종종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운 주변적 종교환경과 타협하기도 한다. 또 심지어는 이민을 와서 미국인이 되었으면서도 우리는 ‘한국계 장로교인’이니 ‘히스패닉계

Protestants, Agnostics,” In *Religions of America*, N.Y.: Touchstone, 1975, pp. 329-332.

- 2) Mead, Sidney E., “The Nation with the Soul of a Church,” In Richey, R. E. & D. G. Jones eds., *American Civil Religion*, N.Y.: Harper & Row, Publisher, 1974, p. 67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종교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다. 예컨대, 심리학자 에릭슨(Erikson, E. H.)이 『유년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N.Y.: W. W. Norton, 1950)나 『정체성: 젊은이와 위기(Identity: Youth and Crisis)』(N.Y.: W. W. Norton, 1968)에서 보여준 사회적 가치와 종교적 규범 등이 개인 인격의 발달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나 『젊은이 루터(Young Man Luther)』(N.Y.: W. W. Norton, 1958)에서 구체적으로 루터의 젊은 날 종교적 요인들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연구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또 사회학자 한스 몰(Hans Mol)이 편집한 『정체성과 종교(Identity and Religion: International Cross-cultural Approaches)』(Beverly Hills: Sage Studies in International Sociology, 1978)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 독일, 및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정체성이 종교적 사회화, 통합 및 다원화 등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실고 있는 고전이다.

- 3) Fontinell, E., “The Returns of Selves,” *Cross Currents* 43 (1993): 358-374, Geregn, K. J., *The Saturated Self: Dilemmas of Identity in Contemporary Life*, N.Y.: Basic Books, 1991, Taylor, C.,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카톨릭교인'이니 하는 식으로 미국 내에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공동체들도 있는 것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미국의 종교는 변해왔다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즉 미국의 종교가 미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면, 그 미국의 종교가 변화함에 따라서 미국인의 정체성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결국 미국 사람 개개인도 자기 시대의 종교에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종교의 역사적 변이에 대한 이해는 미국인의 정체성 탐구의 전제조건이라고도 하겠다.

대체로 미국종교사는 세 가지 시기를 통해서 크게 변화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첫 번째 시기는 건국이후 근 300 여 년간으로 이른바 '개신교 시대'다. 두 번째 시기는 20세기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다 종교 시대'다. 그리고 마지막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는 소위 다시 '보수 복음주의 소그룹 시대'다.<sup>4)</sup>

그러니까 처음에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이민을 왔던 청교도들이 개신교 전통을 정신적 지주로 하여 단일 국교의 정통성을 기조로 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종교는 자유라고 했지만 개신교 울타리 안에서 용인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국교화(establishment)는 당연한 결과였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경부터 새로운 이주민들이 동유럽으로부터 대거 큰 도시들로 유입되면서 이러한 주류 개신교 신앙에 변화가 점차 일어난다. 새로 낫선 형식의 기독교를 가져온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주류 개신교 속으로 포함되어 미국화 되려는 경향과 더불어 각기 개별 종교별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점차 초교파적 무드가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개신교 내 교파다원주의(sectarian pluralism)를 더욱 당연시하다 못해 심지어는 타종교까지도 용인할 수 있는 '다 종교 시대'를 열게 된다. 이런 흐름을 타고 미국인의 종교적 정체성

4) Albanese, Catherine, *Religions and Religion*,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1, p. 503.

은 역시 주류 청교도적 복음주의 성향으로부터 차차 다양한 개신교적 모습들에 영향을 받으며 더 자유로운 형식들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다 종교 시대’는 종교들이 사회적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던 시대다. 개신교 일변도의 미국의 종교풍토가 깨지면서 카톨릭, 유대교 그리고 심지어는 동양종교들까지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아로부터의 폭넓은 이민들과 미국 내에서 급변하게 된 지리적 이동성, 인종 및 종교간 상호결혼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공공적 강조 분위기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sup>5)</sup>

주류 개신교가 아니었던 카톨릭이나 유대교 그리고 아프리카인 종교들이나 아메리칸 인디안 종교들 및 일부 동양에서 유입된 종교들은 미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류적 종교와 만나고 그 속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미국 내에서 본래의 전통과는 사뭇 다르게 독특한 제도적 개혁을 하여 자체의 정체성이 일부 흔들리기 일쑤였다. 예컨대 이민들이 싸들고 왔던 신앙 보따리들은 2세나 3세가 되면 어김없이 그 고유한 성격을 잃어버렸다. 그 대신 소위 하나의 공통적인 종교, 즉 모든 종교(파)를 초월하는 다만 미국인이기에 믿게된 이른바 ‘미국종교(the American Religion)’로 동화되어 버린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을 ‘하나의 종교적 용광로(a religious melting pot)’라고 허버그(W. Herberg)는 불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민들의 각개 민족성을 등에 업고 각개 종교들은 미국 상륙을 시도한 셈인데 주류 개신교적 정체성에 휩쓸리다보니 각개 민족적 고유의 종교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sup>6)</sup>

그러나 이렇게 비주류 종교들의 고유한 정체성이 많이 상실된 반면에 그에 못지 않게 주류 개신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 즉 카톨릭, 유대교 그리고 다양한 비주류 종교들은 비록 주류 개신교적 문화 속으로 파고들지만 이는 자신들의 의례나 생활 방식을 지켜

5) Wuthnow, R., "Restructuring of American religion: Future Evidence," *Sociological Inquiry*, 66/3 (August, 1996): 303.

6) Herberg, Will, *Protestant, Catholic, Jew*, Garden City: Anchor Books, 1955.

가면서였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류 속에 이질적인 것들이 포함된 것을 뜻하고 결국 주류 개신교 자체의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일련의 경향은 마침내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정통과 이단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뜻했다. 소위 전통적 종교들의 모든 정체성이 깨진 새로운 의미의 종교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한 오직 '미국종교'라는 통문화적 정체성만이 남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소위 벨라(R. N. Bellah)의 '공민종교(the Civil Religion)' 개념이 정당화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런 시대적 정황 위에서였을 것이다.<sup>7)</sup>

끝으로 198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보수 복음주의 소그룹 시대'는 앞선 '다 종교 시대'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반작용적 성격이 다분히 배태되어 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미국종교'라는 폭넓은 통문화적 정체성 속에서 잃어버렸던 더 구체적이고도 강한 옛 주류 종교적 정체성을 되찾아 보려는 보수 복음주의 소그룹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미 종교다원주의가 주도하는 사회라서 건국 초기처럼 국교적 위상의 강한 주류 개신교의 복원은 용납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소그룹들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렇게 열린 종교시장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선택의 기회로 나타난 그들의 보수 복음주의적 분명한 색깔은 오늘날 미국인의 종교적 정체성에 의미심장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국종교의 정체성은 개신교 전통에서 유래하는 언론, 학교제도, 정부의 의사전달 체계 및 상업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미국문화 속의 일상적 종교성 주변에서 목격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핵심적 요소는 개신교 주류, 공민종교 및 거대 문화종교라고 한다. 특히 미국종교사를 통해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이러한 종교적 정체성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주인공으로 다양한 형식의 천년왕국주의(millennialism)가 꼽히고 있다.<sup>8)</sup> 그것이 바로 다가올 시대를 지배하고 순

7) Bellah, R. N.,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96/1 (1967): 1-21.

8) Albanese, Catherine, *Op. Cit.*, pp. 13ff.

수함을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는 미국 문화의 새 주류와 민주적 대다수의 종교 및 미국의 공식적 얼굴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2. 현대 미국종교의 복잡화와 민족지적 연구 방법

사실 위에서 윤곽지워진 미국종교사의 맥이 대체로 근자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미국종교사 책들의 보편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다. 즉 나름대로 뚜렷한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가정이 깔려있는 셈이다. 과연 미국종교사는 하나의 방향으로 향한 일사불란한 전통일까? 최근 들어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고 자체 수정적인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거슬러 올라가자면 1970년대 이후 강조되기 시작한 미국의 종교적 다원성에 대한 담론들과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또 이론적으로는 보편적 거대 이론구조를 비판하고 개별적 컨텍스트의 의미를 강조하고 나온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나 소위 '백인 신화(the White Mythology)'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거부하고 등장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 등과도 맥을 같이 하는 셈이라 하겠다.

아무튼 미국 종교의 역사는 비록 짧지만 자료의 보존과 발굴이 매우 활발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급속도로 축적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 많은 자료들을 하나로 꿰뚫어서 맥을 잡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종교사의 논의는 예전에 비해서 아주 복잡(complexity)해지고 있다. 즉 미국종교사 자체가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라기보다 제멋대로의 파편적인 다양한 사실들과 사건들의 덩어리(aggregate)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9) 미국종교사 책에서 이러한 종교적 다원성이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올스트롬의 책(Alstrom, Sydney,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Yale University Press, 1972)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후 1980년대 이후로는 대부분의 미국종교사 책들이 이러한 경향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알바니즈의 책(Albanese, Catherine, *Op. Cit.*)은 분명히 이런 점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현대 미국종교에 대한 논의에는 종교사가들 뿐만이 아니라 종교사회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 업적들 중에는 미국종교의 세속화에 대한 기존이론들을 재평가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 여성 종교 문화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지방 종교단체들에 대한 강화된 관심 등이 유난히 눈에 띄고 있다. 그러니까 우익인가 좌익인가나 보수인가 진보인가와 같은 전체 미국을 대상으로 제시되었던 종전의 이론 틀들은 설득력이 약화되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속한 미국인의 종교적 삶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어느 특정 종교 전통이나 조직 또는 제의적 표현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종교 상징들과 문화적 형식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셈이다. 즉 분석의 수준들(levels of analysis)이 종교적 복잡화를 고려하여 거시적 획일화를 지양하고 미시적 다양화를 표방하고 있다고도 하겠다.<sup>10)</sup>

예컨대, 우스나우(R. Wuthnow)는 미국 종교의 조직과 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어떤 목표를 지닌 발전 과정인가 혹은 통탄할만한 어쩔 수 없는 몰락 과정인가 하는 기존의 쟁점을 뛰어 넘어 일방적인(uni-directional) 경향을 비판하고 다양한 담론을 유도하는 복잡한 설명 틀을 ‘재구축(restructuring)’ 하였다.<sup>11)</sup> 이것은 백인, 중산층 중심으로 미국적 종교경험을 보편화 해온 종전 방식을 피하고 새로운 분석적 접근을 시도한 셈이다. 또 보수 교단인가 진보 교단인가에 상관없이 실제 현대 미국의 특정 종교집단 속에서 종교적 신앙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위해 얼마나 다른 기반을 제공하는가 하는 해몬드(P. E. Hammond)의 연구<sup>12)</sup>나 루프(W. C. Roof)의 베이비 붐 세대의 영성(spirituality) 연구<sup>13)</sup> 및 앰머만(N. Ammerman)의 우익 좌익 시

10) Becker P. E. & N. L. Eiesland eds., "Developing Interpretations: Ethnography and the Restructuring of Knowledge in a Changing Field," In *Contemporary American Religion*,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1997, pp. 15-16.

11) Wuthnow, R., *The Structuring of American Religion: Society and Faith Since World War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12) Hammond, P. E., *Religion and Personal Autonomy: The Third Disestablishment in America*,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2.

비를 넘어서 특정 종교집단과 사회변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sup>14)</sup> 등은 모두 유사한 맥락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주 최근 이러한 미국종교의 복잡화와 다원적 분석의 필요에 부응하는 가장 각광을 받는 시도로서 무엇보다도 민족지(ethnography)적 연구 방법의 도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족지적 연구 방법은 특정 목적을 지닌 매우 미시적 연구들로서 종교변동의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개인적인 신앙과 조직적 문화 사이의 차이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며, 종교경험과 종교 문화적 간격을 더욱 세련되게 그려낼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민족지적 연구도 매우 다양하여 직접 관찰이나 인터뷰 그리고 교회 같은 종교단체의 자체 기록조사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을 그들 자신의 언어로 만날 수 있어서 연구 내용의 질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15)</sup>

그러니까 민족지는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실재를 학문적으로 재구축 해낼 수 있는 매우 생산적인 마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지적 연구들은 재구축된 종교환경의 한 '영역(region)'을 주로 검토한다. 예컨대, 특정지역의 바하이 지방교회의 종교적 특징을 다루는 것이다. 비록 전통적인 담론이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존 연구들에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의 변형을 특정한 차원에서 다룬다. 특히 민족지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의 시기를 분석하기에 적당한 도구다. 거대 규모의 이론을 실제 경험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새로운 현상에 대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자료들과 기존의 무시되고 검증되지 못한 주제들에 대한 참신한 이론과 안목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것이 민족지라고 생각된다. 무

13) Roof, W. C., *A Generation of Seekers: The Spiritual Journey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3.

14) Ammerman, N., "Telling Congregation Storie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5 (1994): 289-301.

15) Wuthnow, R., "The Cultural Turn: Stories, Logic, and the Quest for Identity in American Religion," In Becker P. E. & N. L. Eiesland eds., *Contemporary American Religion*, p. 246.



엇보다도 일부 자료로부터 미국종교 전반으로 지나친 일반화를 해온 경향들을 비판해내고, 백인과 중산층과 개신교 중심의 경험에 뿌리를 둔 접근 방식들의 보편적 가정들을 재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지적 연구가 일관된 거대 이론화를 거부한다고 단순한 사례 수집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다. 비록 통계적 일반화는 해내기 어렵지만 이론적 일반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컨대, 민족지적 연구는 비전통적 종교집단의 종교적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을 조직해내고 의사 결정 양식을 구성해내는 도덕적 경계들과 종교 문화적 범주들을 그려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종교적 지역 공간과 서로 다른 종교조직들 사이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알게 해준다는 것이다. 예컨대, 종교의 세속화에 대한 단선적인 이야기를 재고하고 종교생활을 구성해내는 도덕적 문화적 간격들에 대한 더욱 더 복잡한 지도를 개발해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 속의 종교적 복잡성을 기존의 명확히 객관적인 이론들보다 좀더 구체적인 지역성을 배경으로 실감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sup>16)</sup>

이러한 최근의 연구 경향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도 미국종교와 정체성 추구에 관련된 민족지적 사례연구의 예들을 더불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 3. 사례 1: 앤(Anne)의 종교생활과 정체성의 추구<sup>17)</sup>

첫 번째 사례는 앤의 이야기다. 앤은 시카고 외곽 지역 시카모어 그로브(Sycamore Grove)에 사는 오돌(O'Doul)가의 장녀다. 그녀에 대한 조사는 시카고 지역의 한 종교 집단인 카톨릭 카리스마틱 리뉴얼(Catholic Charismatic Renewal, 약칭 CCR)의 기도 그룹, 페이스풀 서번트(Faithful

16) Becker P. E. & N. L. Eiesland eds., *Op. Cit.*, pp. 17-19, 22.

17) 이 사례의 내용은 Lawson, M. P., "Struggles for Mutual Reverence," In Becker P. E. & N. L. Eiesland eds., *Contemporary American Religion*, pp. 51-77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Servants)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 조사방법은 3회에 걸친 총 7시간의 직접 인터뷰에 기초한다. 회심의 경험을 가진 바 있는 앤은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풀어 나갔고, 전반적으로 종교상징들이 그녀의 삶과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종교 집단의 신 개념은 따뜻하게 돌보아 주는 ‘아빠(daddy)’ 하나님의 이미지가 특징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순종과 응답의 관계가 강조되고, 이런 관계는 방언과 예언의 카리스마적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신자들은 믿고 있다. 이런 신자들이 성령(the Holy Spirit)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절정에 이르는 실제 제의 과정을 보면, 너무 광신적인 정도여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신 질환으로 보이기도 한다. 간증들은 전형적으로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축복과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일종의 간증 형식으로 진행된 앤과의 인터뷰는 회심 이전 “섹스와 마약과 록 앤 롤”에 탐닉된 삶, 불안정한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주 힘들었고 아직도 진행중인 회심 이후의 많은 행동양식의 변화 이야기로 이어졌다. 앤은 영적인 진화의 과정인 회심을 겪으며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였으며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철저한 복종을 하였다고 한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한다고 성경에 있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왜 복종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상호 존경(mutual reverence)이다” 라고 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 관계에도 그대로 확장하고자 하고 있다.

앤의 아버지 해리 오돌(Harry O'Doul)은 아일랜드 사람의 핏줄을 타고 난 지독한 알콜중독자로서 본인이 결국 술 때문에 죽는 것은 물론 가족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앤의 어머니 해리엇 오돌(Harriet O'Doul)의 아버지 역시 아일랜드계 카톨릭 신자로서 알콜중독자였고, 외가 쪽은 독일계 침례교인으로 근본주의자였다고 한다. 그녀는 21세에 아일랜드계 카톨릭

릭 신자였던 해리와 결혼해서 13년 동안 8명의 아이들을 낳았다. 침실 세 개 짜리 집에서 돈에 쪼들리며 살아서 아이들은 대개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돈을 벌러 나가야 했다. 해리는 성당에 거의 나가지 않았었고, 해리 외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었는데 바티칸 제2 공의회 이후쯤부터 카톨릭 교회와 인연을 끊었다.<sup>18)</sup>

오돌가의 딸들은 집안이 엉망이었다고 기억한다. 특히 앤은 자신이 “아빠의 여자(Daddy’s girl)”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그래서 그로부터 회복을 위한 치료집단에도 다녔던 것을 고백했다. 이런 것은 귀엽게 생긴 여동생 로라(Laura)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심지어 남동생들까지도 성적으로 괴롭히며 여기에 앤을 같이 공범으로 끌어들이었다. 이런 집안 내력 때문인지 앤은 후에 자신이 남자들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늘 섹스를 이용했다고 한다. 이런 것을 안 어머니 해리 외는 대노하였고,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였다. 술주정뱅이 남편과 돈도 없이 살려니 어머니는 아이들을 애정보다는 아주 엄격히 다룰 수밖에 없었다. 이런 와중에 딸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남자를 만나는 것만이 가난에서 자신들을 구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앤은 본래 결혼하고 애를 낳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집을 나간 지 채 2년이 못되어 그녀는 결혼했다. 이러한 일련의 가정 환경은 앤의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앤은 집을 나가서 비서로 일하며 여고동창들과 같이 좀 살았었다. 그러다가 파티에서 훨씬 나이 많은 월남전 참전용사를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그는 앤의 가족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특히 어머니 해리 외의 마음에 들었었다. 앤은 그와 혼전 성관계를 가졌었던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자기보다도 어머니 해리 외보다 더 잘 죽이 맞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어머니와 그가 같이 살지 말았

18) 1960년대 초반에 있었던 바티칸 제2 공의회 이후 카톨릭의 교리가 개방되면서 시카고 지역의 엄격한 아일랜드계 카톨릭 신자들이 상당히 교회를 멀리 하게 되었다는 기록들이 있다.

어야 하는 것인데...” 하고 앤은 지금 회고하고 있다. 2년 후 앤은 남편과 이혼했다. 이혼 후 다시 다른 남자들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낙태를 하고, 아버지가 술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자극이 되어 작심하고 직장에서 대학에 학비를 대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승진의 기회를 노리게 된다. 그래도 남자는 필요했다. 그래서 ‘그냥 한 남자’라고 여겼던 남자와 동거했다.

이런 와중에, 2년간 술을 끊었던 아버지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상담자의 충고를 7개월 동안 참고 견디던 어머니는 마침내 계속 술을 마시면 이혼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이런 최후 통첩이 아버지를 자극하여 아버지는 4주 짜리 치료과정을 받지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다시 또 술을 마셨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안에서 그래도 제일 촉망받는 존재였던 남동생 조니(Johnny)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 이 사고는 집안 식구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침통함을 구실로 술을 계속 마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카톨릭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여동생 제니즈(Janese)도 근본주의 집단과 성경공부를 시작했고, 로라는 동거하던 연상의 남자친구를 끊었다. 앤이 동거하던 남자와 헤어져 카리스마적 재생운동에 뛰어들어 영성 추구를 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집안의 장녀로서 앤에게 오돌가의 중요 사건은 곧 자신의 삶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처음에 한 동안은 어머니와 매일 미사에 나가면서 카톨릭 교회로 돌아 왔었다. 그러다가 자신의 교구에서 열린 아주 카리스마적인 영성 생활 세미나에 어머니와 같이 참석을 하게 된다. 세미나의 절정에서 어머니는 성령 가운데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앤은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더욱 더 깊이 이 카리스마적 재생운동에 빠져들었다.

특히 그 때 마침 노틀담에서 카톨릭 카리스마틱 리뉴얼의 1주일 간 전국규모 연례회의가 열렸는데, 자신의 삶 속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삶을 찾으려 하는 동생 로라와 같이 거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알콜중독을 치료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앤은 그렇게 한다. 몇 달 후 앤은 다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고, 그 다음날 다시 신부(father)를 데려

가 30년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뉘우침의 고백을 듣는다. 이런 남편의 변화와 딸들의 변화를 보면서 어머니 해리엇도 성령 침례를 받게 된다. 그러나 5년 후 아버지는 죽고 또 2년 후 남동생 앤드류가 어머니와 권총 자살을 했다. 물론 가족들의 충격은 컸다. 이런 가족들의 삶은 그들의 영성에도 분명히 중요한 관계가 있었다. 앤은 이런 가운데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여겼다.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인간관계 속으로 자신을 데려가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겼다.

결국 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서 카리스마적 상징체계를 받아드렸던 셈이다. 그녀는 자신의 회심 경험이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의 패턴 특히 남자관계나 직업의식까지를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하였다. 앤은 자신이 “하나님 꿈(God dream)”이라고 부르는 영성의 추구를 시작한 뒤부터 동거남과 헤어지고 남자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독신생활을 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신경쇠약과 불면증이 찾아왔다. 승진에서 쳐지고,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신학 공부를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에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차차 회복되어 카톨릭 카리스마틱 리뉴얼에서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복잡한 정체성의 문제 속으로 직접 뛰어 들었던 셈이다. 자신이 가장 좋았던 때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할 때였다고 앤은 말했다. 그 때 자신은 일관되고 편안한 자신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때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남에게 쉽게 주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즉 잘못된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는 종종 남이 우리를 정의하게 한다고 앤은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이 우리를 정의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만드는 데 따라서 맞추어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명상과 더불어 하나님과 같이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사랑 속에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 안에 있게 된다고 앤은 설명했다. 아무튼 하나님과의 ‘상호존경(mutual reverence)’의 관계 가운데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앤은 발견했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남에게 주어야만 했던 전의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컨대 몸으로 유혹해서 남자들을 조종하려면 그녀는 “그들을 위한” 다른 존재가 되어야만 했었다고 앤은 말했다. 물론 남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 직업상 만났던 여자들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주어야 했다고 앤은 생각했다.

이런 앤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비티(M. Beattie)가 말한 “상호의존(codependence)”의 관계로 설명이 될 지도 모른다. 여기서 ‘상호의존’이란 ‘남의 행동을 조종하는데 몰두하다보니 그가 또 자신에게 영향을 주게 하는 관계’를 뜻한다.<sup>19)</sup>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남에게 즐거움을 대가로 주면서 그 대신 남을 조종하려는 것이다. 앤의 경우에는 섹스는 물론 그를 넘어서까지 이런 관계를 확대했던 셈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남에게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준다고 생각했었던 셈이다. 회심 후 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이런 상호의존의 관계를 넘어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true self)’를 발견할 수 있는 상호존경의 관계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것은 점차 사회적인 인간관계로부터 극단적으로 그녀를 초연하게 하였다. 아마도 이런 것이 그녀가 남편과 헤어지고 직장 사람들과 멀어지게 된 까닭인지도 모른다. 심지어 앤은 페이스풀 써번트 기도 그룹의 ‘영성 가족’으로 새로 돌아왔을 때조차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것만을 고집하다보니 배척된다.

이렇게 외로운 가운데 기도 집단에만 기도하러 다니다가 다시 한 남자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하지만, 앤이 임신을 하자 그 남자는 도망가 버린다. 그 후 앤은 유산하고 심신이 쇠약해지는데 의사는 그것을 ‘환경병(environmental illness)’라고 진단을 내렸었다. 이렇게 해서 거의 그녀는 파탄지경에 이른다. 앤은 인터뷰의 끝에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한 충실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생각과 많은 행동을 하게 했다. 그런데 이제는 갈 데가 없다.”라고.

이 조사 연구를 통해서 카톨릭 카리스마틱 리뉴얼이라는 종교집단의 정

19) Beattie, M., *Codependent No More*, Center City, MN: Hazelden Foundation, 1987, p. 31.

신 치료방법의 한 측면을 볼 수 있다. 그 치료 과정의 핵심은 새로운 의미가 있는 타자인 '하나님(예수)과의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카리스마적 제의와 상징과 담론 등을 통해서 잘못된 인간관계를 억제하고, 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넘어가게 하여 개인적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큰 변화를 의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가족 관계나 혈통 등 다양한 환경적 문화적 요인들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종교가 또한 의미심장한 변수가 된다는 점을 이런 민족지적 사례연구는 매우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 4. 사례 2: 대형교회의 등장과 지역적 종교 정체성의 변화<sup>20)</sup>

두 번째 사례는 조지아주 데쿨라(Dacula, Georgia)에 대형교회가 등장하면서 생기는 지역적 정체성의 변화 경우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대형교회의 내적 역동성과 그 언저리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이에 대한 조직간 대응방식을 살펴보는 가운데 정체성의 문제를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종교 영역에서 개교회(congregation)들의 다양한 대응들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초기의 조직적 개혁이 성공하게 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당연시 작용하던 관계 형식들을 무너뜨리고 재구축(restructuring)의 과정을 시작한 경우들이라는 기존의 지적이 있었다.<sup>21)</sup> 이러한 재구축은

20) 이 사례의 내용은 Eiesland, Nancy L., "Contending with a Giant: The Impact of a Megachurch on Exurban Religious Institutions," In Becker P. E. & N. L. Eiesland eds., *Contemporary American Religion*, pp. 191-219의 보고 내용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형식만 같고 이질적인 것(isomorphism)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중심적인 권위들이 더 많아져서 다양해짐에 따라 어떤 중심적 권위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 처음부터 모사(mimesis)를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sup>22)</sup> 하지만 여기서는 종교 영역들 안에서, 초창기 성공적인 개혁은 어떤 중심적으로 정당화된 권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다양한 조직적 대응양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미국종교 안에서의 형식적 재구축이 개교회들 사이에서 지역적 관계의 특이성을 얼마나 증가시키는가<sup>23)</sup> 밝히게 된다. 워너(R. S. Warner)에 의하면,<sup>24)</sup> 이런 지역적 그룹들이 신학, 예배, 사회적 가치에 따라 넓게 바뀔에 따라서 종파적 연관성(denominational affiliation)은 개교회의 행위를 예측하는데 별 도움이 안되게 된다. 오히려 각개 개교회의 특성이 드러나는 개교회주의(congregationalism)는 종파들 안에 있는 개교회들이 공통되는 종파적 정체성에 보다 그 지역적 환경 속에 있는 주류 사람들에 일치하는 이념적으로 같은 집합체로 될 때 사실상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종파주의의 중요성이 감소함에 따라서, 개교회들은 그들의 종파와 덜 연관되고 근처의 다른 종교 조직들과 오히려 연관되어 자신들의 정체성과 의무를 정의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테콜라 지역은 본래 목화씨를 빼던 마을이었는데 해충이 남부를 휩쓸면서 주민들은 1950년대부터 농사일들을 그만두고 30마일이나 되는 아틀란

21) Meyer, John W. & W. R. Scott, *Organizational Environments: Ritual and Rationality*, Beverly Hills, CA: Sage, (Becker P. E. & N. L. Eiesland eds., *Contemporary American Religion*, p. 192에서 재인용).

22) Powell, W. W. & P. J. DiMaggio, eds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Becker P. E. & N. L. Eiesland eds., *Contemporary American Religion*, p. 192에서 재인용)

23) 이 문제는 Wuthnow, R., *The Restructuring of American Religion: Society and Faith Since World War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에서 이미 논의되어 잘 알려져 왔다.

24) Warner, R. S., "The Place of the Congregation in the Contemporary American Religious Configuration," p. 94 In Wind, J. P. & J. W. Lewis, *American Congregations: New Perspectives in the Study of Congregations*, Vol 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타 시의 제네랄 모터스 공장까지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 그러다 1970년대에는 탈산업화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316번 조지아 하이웨이가 뚫리면서 아틀란타까지 접근이 쉬워지자 땅값이 싸고, 공립학교들도 좋고, 시골 풍의 아름다운 경치 덕에 중산층들에게 각광받는 준교외(exurb)가 된다.

이 조사는 1992년 4월부터 1994년 1월까지 근 2년간에 걸쳐 예배 및 각종 모임에 대한 참여 관찰과 지역 개교회의 성원들과 각 종파의 직원들 그리고 마을 지도자들과의 60회 이상의 인터뷰에 근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 생긴 대형교회<sup>25)</sup>인 헤브론 침례교회(Hebron Baptist Church)와 그 주변 개교회들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헤브론 침례교회는 1842년에 세워져 이 지역에서 꽤 오래된 개교회이다. 그러나 15년 전만 해도 데칼라 주변의 십여 개 되는 교회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었다. 하지만 17년 전부터 계속 목사직을 맡고 있는 래리 윈(Larry Wynn)이 안정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준교외 지역의 목회적 특성을 강조하는 지속적인 외향적 비전을 보여주면서 3,400명에 이르는 정규 신도들을 확보한 대형교회가 되었다. 이것은 데칼라의 전 인구보다도 많은 것으로 헤브론 침례교회의 경우는 대도시 외곽 교회성장의 고전이 되었다.

본래 조지아 남부 토박이였던 래리 윈은 1977년 머서(Mercer) 대학을 나와 스물 네 살에 이곳에 부임하여 데칼라 소방서의 출동에도 같이 가고,

25) 최근에 이런 대형교회의 출현을 미국 종교의 재구축 과정의 일환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큰 개교회들은 대개 교외의 대형 상가, 창고형 슈퍼마켓,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종교의 경쟁적 시장의 침범으로서 일반인들에게 굉장한 매력을 주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형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직 어렵다. 우선 신도 수가 2000명 이상 또는 1000명에서 자르거나 또 800명도 안되게 보기도 한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므로 학자에 따라 미국내 대형교회의 수를 350개에서부터 1000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추정들을 한다. 하지만 대형교회들은 대체로 보수적 복음주의적(conservative evangelical)이거나 근본주의적(fundamentalist)이고, 온난 지역(the Sun Belt)에 펼쳐져 있다. 사례연구들을 보면, 대형교회들은 아주 강한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하고, 개인적이거나 소그룹 프로그램들은 감정적이고 영적인 후원을 하고, 반면에 큰 예배 모임은 강렬성을 보여준다고 한다.

신도들에게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하라고 하는 등 공격적인 목회활동을 시작했었다. 비전(*The Vision*)이라는 주보를 7,000여명에게 나누어주어 주변적인 신도들을 관리해 나갔다. 예배나 후원회 활동에 참여 못하는 신도들에게 이 주보와 컴퓨터를 통한 의사전달 방식은 중요한 접촉의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물론 예배 자체는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준교외 지역의 새로운 신자들을 붙잡는 데 성공하려면 교회가 개혁적이고 폭넓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찬양과 영적인 자극을 주는 예배 경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보수적인 침례교 신학과 개인적 치병의 형식을 잘 균형 맞추어 나가면서 준교외적 젊은 층의 가정과 생활방식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했다.

여기에서 직업적이거나 특수한 필요에 의한 여러 후원그룹(*support group*)들은 신참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었다. 이외에도 이혼 극복, 알코올 중독으로부터의 회복 등을 도와주는 후원그룹들이 생겼다. 그리고 아이보기, 재테크, 데이트하기, 성생활 등의 문제를 다루는 생활기술(*Life Skill*) 세미나들을 제공했다. 또 사진, 집담회, 친목회, 여름과 겨울 수련회 등에 참여하는 젊은이들도 오 백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헌충일(*Memorial Day*) 전주에는 '별빛 십자군(*Starlight Crusade*)'이라는 커다란 이벤트를 여는데 테콜라의 축구경기장을 빌려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매일 밤 연령에 따라 피자, 햄버거 등 다양한 저녁식사 모임을 벌이는 것이다. 이 행사를 위해 45,000 달러 이상을 들이는데 6,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180명의 성가대와 유명한 복음 가수들을 초대하기도 한다. 1993년에 벌써 190만 달러에 이르렀던 이 교회의 예산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혁적으로 개발해온 셈이다.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패한 적도 있었다. 예컨대 한 때 토요일 저녁 예배를 열기도 했었으나 참여가 적어서 그만두었다. 많은 신도들은 역시 일요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예배를 선호했던 것이다. 이 헤브론 침례교회의 특징과 정체성은 대형 예배 분위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화려하게 장식된 실내에 백인 중산층 젊은 가정들과 중년부부들 그리고 십대

들이 주류 신도들인 일요 예배는 침례의식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오케스트라와 거대한 성가대의 찬양과 강렬한 박수와 아멘 소리가 처음을 장식한다. 그리고는 음악목사가 나와서 찬양을 몇 개 더 한 뒤, 원 목사가 우스운 기독교적 짧은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한다. 그의 설교는 남 침례교 가운데 헤브론 침례교회의 독특성을 강조한다.

한편 이러한 헤브론 침례교회의 대형교회로의 급성장은 주변에 있던 다른 교회들의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사실 테콜라 지역의 21개 개교회들 가운데 헤브론 침례교회 말고는 신도가 300명이 넘는 것은 없고 대부분이 150명에도 못 미친다. 그리고 모든 개교회들은 공식적인 종파적 연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높은 정도의 개교회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테콜라 지역 안에 있는 개교회들은 어느 것도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물론 모두 신학적으로 보수적이지만 차이는 있다. 즉 어떤 것은 오순절파(Pentecostal)나 카리스마적(charismatic)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어떤 것은 근본주의자(fundamentalist)로서 자기 정체성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은 세 교회들이 헤브론 침례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재구축해 나아가는 형식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 번째는 힌턴 메모리얼 연합감리교회(Hinton Memorial United Methodist Church)의 예다. 1960년대까지 이 교회는 헤브론 침례교회와 격주로 일요일에 신도들이 같이 예배를 보았었다. 그러면서 꾸준히 성장하여 일요일 출석 신도가 120명에까지 이르기도 했었다. 그러나 6년간 목회를 했던 제럴드 게하드(Gerald Gerhard) 목사 때 신도들의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서 옆의 카리스마적 독립교회인 트리니티 기독교자 모임(Trinity Christian Fellowship)으로 옮겨 가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교회 분열은 헤브론 교회가 힌턴 교회 젊은 목회자들에게 빠른 성장의 비전을 심어 주었었기 때문이었다고 힌턴 교회 사람들은 말한다. 분열의 상처뿐만 아니라, 힌턴 교회는 헤브론교회에 신도들을 직접 빼앗기기도 했다고들 한다.

물론 힌턴 교회는 열성신자의 집안 사람들, 종파적 충성심을 지닌 사람

들이나 오랫동안 힌턴 교회 신도들의 친분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새 신도들을 끌어들이려 노력은 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1993년 힌턴 교회가 새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을 때, 지역 감독은 “재개발 개교회(redevelopment congregation)”가 되어야 한다고 다그쳤다. 힌턴 교회의 신도들은 하지만 모두 종단차원에서 권유되는 성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헤브론 교회 같은 큰 교회가 싫어서 힌턴 교회를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종단적인 권유와는 상관없이 힌턴 교회는 아주 서서히 약간씩만 성장을 해왔다. 그들은 대형교회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데 힘을 써야한다고들 했다. 예컨대, 데쿨라 지역의 독특한 역사를 보존하고, 마을 공동체의 자부심을 촉진시키는데 적극적이었다. 신도들은 헤브론교회가 아틀란타 대도시지역에 호소하는 것에 대조적으로 지역사회 활동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압박 등으로 인해서 힌턴 교회는 그 역사적 정체성을 이용하는 환경을 개발하고, 헤브론 교회와 직접적인 신도 유치 경쟁은 피하려 했던 셈이다.

두 번째는 트리니티 기독교 모임(Trinity Christian Fellowship)의 경우이다. 이 모임은 1990년 힌턴 교회에서 분리해 나온 뒤 강한 성장을 추구해왔다.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했는데 1993년에 교회도 새로 짓고 1994년에 벌써 280명이 넘게 되었다. 데쿨라의 서쪽으로 약 6마일 정도 떨어진 교외 지역에 위치하지만, 헤브론 교회처럼 아틀란타 대도시의 동북부 지역을 자기 영역으로 정체성을 심고 있다. 제랄드 게하드가 계속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의 새 신도들에 의해 창조되는 요구를 다소 앞서갈 정도로 트리니티 교회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왔다. 다양한 주일학교와 작은 봉사 그룹들, 그리고 수요 저녁식사 모임 등 헤브론 교회만큼 세분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치유와 자기 개발의 기풍이 강조되고 있다.

트리니티 교회는 급성장의 부정적 의미를 줄이려고 애쓰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교회의 원 목사와 가깝게 지내면서 대형교회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방식은 좀 다르다. 트리니티 교회는 자체 성장 뿐 아니라 많은 다른 지역교회들의 모 교회 노릇 하기(mothering)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앙집권화나 자체강화 대신에 분권화(decentralization)와 프랜차이징(franchising)을 해서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처럼 돌봄으로써 다른 가정들을 돌보는 가정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고, 강한 사도 프로그램으로 복음주의적 확장의 양식을 정립하려는 셈이다. 새로운 개교회들을 낳는 것을 부모가 되는 것에 비유하는 아주 생생한 은유와 유비를 설교에서 하기도 한다. 제의 적 실천도 그런 주변의 다른 개교회들의 어머니 노릇을 하는 가정으로서 정체성에 맞추어진다. 예컨대 대형교회로서의 지위는 추구하지만 헤브론 교회와의 직접적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어려우므로 위성적 개교회들에 대한 분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다만 그 가운데 모 교회이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세 번째는 데칼라 제일 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Dacula)의 경우다. 이 교회는 지난 십 년간 헤브론 교회의 성장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종교집단이다. 시내 한가운데로 통하는 곳에 있으면서 아주 보수적이어서 근본주의적 성향인 이 교회는 주로 하층 노동자 층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기타와 드럼 등의 악기를 사용해서 음악적인 스타일을 개혁하여 차별화하고 데칼라 주변의 변화에 양면적 대응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팔머(I. Palmer) 목사는 신도들과 대화를 해 가면서 두 시간씩이나 걸리는 전통적인 이야기 형식의 설교를 한다. 그리고 킹 제임스 판(the King James Version)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한다. 성경에서 제공된 내세적 위안에 덧붙여, 팔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된 매일 매일의 생활을 위한 지시들을 정기적으로 강조한다.

따라서 제일 교회는 급변하는 데칼라의 주변 상황 속에서 성장은커녕 심지어 자체 유지를 위한 일관된 전략도 없는 셈이다. 그래서 하층 노동자들처럼 주변의 성장과 변화에 주로 비껴 서 있게 되었다. 현대화 해보려는 시도들도 있지만, 열정적인 예배와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원하는 새 신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변화에 갈피를 못 잡는 고참 신도들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팔머 목사의 집안 식구들이 주도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이나 여러 후원 프로그램들은 그다지 호응을 받지 못해 왔다. “헤브론 교회가 마치 진공 소제기처럼 십대들을 여기서 빨아 들였다”라고 팔머 목사는 씩씩한 듯 말했다. 이렇게 십대들이 떠나면서 가정을 갈라놓으려는 현대 사회의 음모에 헤브론 교회가 공모하고 있다고 비난도 하였다. 하여튼 나름대로 신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고 힘들게 살아 남을 수는 있을 지 모르지만, 데쿨라 제일 침례교회는 이 지역 종교 환경 속에서 중심적이기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상 우리는 데쿨라 지역 종교환경의 변화를 개교회들의 정체성에 초점 맞추며 살펴보았다. 근자에 들어서 미국종교계에서 종파들의 의미가 약화되어 간다라는 것은 종교사회학적 보고에서 흔한 결론들이다.<sup>26)</sup> 특히 개교회들의 성격이 종파보다도 지역적 특수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데쿨라 지역의 종교 변동은 바로 이런 경향을 나타내는 셈이다. 그리고 개교회들은 물질적 자원의 이용, 인간적 기술과 생각의 원천 그리고 목회자의 지도력의 유형과 기술 같은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종교 조직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조건 지워진다는 것이 말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헤브론 교회와 같은 대형교회의 등장은 다른 개교회들의 정체성 변화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처음에 거론된 기존의 제도적인 동형이질화의 이론이나 권위의 집중화를 따라서 다양성을 전개하는 초기 모사의 이론만으로는 개교회들의 반응을 충분히 잘 설명해 낼 수가 없다.

데쿨라 지역의 연구는 대형교회의 출현이 다른 개교회들에게 성장과 존존을 위한 아주 다양한 전략들을 전개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마치 월마트처럼, 대형교회인 헤브론 교회의 성장은 다른 개교회들에 상당한 반감을 일으켰던 셈이다. 구멍 가게와 같은 헌터 교회는 지역성을 강조하고 대규모 비인간적 조직에 공동체가 넘어가게 되는 공포를 달래주는 시장 전략을 개발했다. 트리니티 교회는 상대적으로 작은 재정을 감안하여 주변의 변동에 빠르게 적응하되, 영향력은 계속 확장을 시키면서 열

26) Wuthnow, *The Restructuring of American Religion*, 참조.

정적인 종교 기업들 속에서의 경쟁은 피하는 성장 전략을 구사했다. 마지막 제일 침례교회는 뒤범벅이 된 적용과 단조로운 프로그램 개혁의 양면적 반응을 하게 되지만 결국 뿌리를 못 내리고 신도들을 유지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이런 반응들은 동형이질화를 가져왔다고 하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다양한 지역 종교 조직의 정체성 형식을 초래했다고 하겠다.

여기서 검토된 사례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 영적 추구의 일부로서 나타나는 미국 종교의 정체성은 이러한 민족지적 조사연구들의 확대로 더욱 성숙한 논의가 가능해지고 있다. 사례 1이 개인적 정체성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사례 2는 집단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유대교인들이 개신교화 하면서 경험하는 정체성의 변화나 동성연애자 그룹들이 나뉠대로의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모습 등 수많은 다양한 접근들이 행하여져 왔다. 이런 가운데 정체성들이 여러 종교 집단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다원화되고 상황에 따라 변형되는가 하면 급기야 해체에까지 이르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이쯤 되면 전통적 의미의 정체성은 점차 무의미해 질지도 모른다. 미국 종교의 정체성 자체가 새로운 정의를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점차 더욱 더 민족지적 조사 연구에 의한 미국 종교의 정체성 탐구는 지속적으로 학문적인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연구가 기존 연구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연구의 대안이라기 보다는 보충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문론이다.